

세상에서 가장 느린 길
섬순례길

1. 여수

개도 / 하화도 / 사도

바다, 산, 길이 어우러진 '섬'을 여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유롭고 느리게 걷는 것이다. 걷기 붐이 일어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길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, 기존에 조성된 섬 길의 정보가 흩어져 있어 이를 알기가 쉽지 않았다. 흩어진 섬 길의 정보를 모아 제공하기 위해 섬과 섬을 잇는 '섬 순례길'* 코너를 기획했다.

*순례길 : 사전적 의미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함을
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
주민들의 삶과 함께했던 길,
개도 사람길

개도는 주변에 작은 섬을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
 덮은 ‘개(蓋)’자를 써서 개도라고 불리게 되었다.
 개도 사람길은 무성한 동백나무가 이루는
 이국적 풍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자
 섬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
 딸감을 구하러 오가던 길이다.

여석역
 선착장

1 ————— 개도

1코스 **4.5km**

화산선착장 → 호령마을

2코스 **3.4km**

호령마을 → 배성금

3코스 **4km**

배성금 → 정목

태고의 신비를 간직한,
사도 둘레길

사도는 공룡 발자국이 3,800여 점이나 발견된 신비의 섬으로 해안 산책로를 따라가면 다양한 기암괴석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화석을 관찰할 수 있다. 연 5회, 바닷길이 열릴 때면 사도를 비롯한 7개의 섬이 하나가 되어 섬과 섬을 오갈 수 있다.

3 사도
둘레길 4km
사도선착장 → 용미암 → 사도둘레길 → 사도선착장

아름다운 비밀의 화원,
하화도 꽃섬길

선조 25년 인동장씨가 피난을 떠나 정착했던 섬으로 꽃이
아름답게 피어 있어 꽃섬으로 두 개의 섬 중 아래쪽에 있어
하화도로 불렸다. 다양한 꽃과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다.

2 하화도

꽃섬길 **6km**

선착장 → 낭끝전망대 →
애리민 야생화공원 → 선착장

큰굴삼거리

갯넙전망대

막산전망대

3 사도
둘레길 4km
사도선착장 → 용미암 → 사도둘레길 → 사도선착장